

『주니어』 잡지를 중심으로 본 교복자율화 이후의  
여학생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 1985년부터 1994년까지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Costume in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Using the 『Junior』 magazine

- From 1985 to 1994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 사 남 혜 승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신 혜 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

*Master: Hye Seung Na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Full time lecturer: Hye Won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ransition of costume in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after the abolition of school-uniform. Fashion photographs of 「Junior」, a Korean magazine for girls, were used for the investigation.

Skirts used mainly were changed in order of pleat, tight, flare, and tight skirt. And skirt length was changed in order of knee, midi, knee, and mini. Slim, baggy, and straight pants together showed high frequency but after 1992, straight pants were used mainly. And pants of ankle length was prevalent. In jacket, Hip line, natural waist, and H-line silhouette dominated. Silhouette of one-piece dress was changed in order of X line, H line, and A line. Semi fit and natural waist were prevalent. And

length was changed in order of midi, knee, and mini. The coat of H line, Loose, semi fit, and knee length was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style. Waist line of coat was changed in order of natural, low, no, natural waist.

In skirt, blue, white, black, and black were used mainly in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respectively. In pants, blue was used mainly regardless of the season. In jacket, blue in spring, and black in other seasons were used. In one-piece dress, blue in spring, red in summer, black in fall and winter were used mainly. Black coat was used mainly. Therefore blue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color by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 I. 서론

일제의 영향으로 통일된 일본식 계복에서 출발하여 각 학교별로 입어왔던 계복은 획일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1983년 3월 2일 새학기 시작과 함께 자유화되었다. 이것은 97년만의 자유복 부활로서 청소년들은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개별성과 개인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동아일보, 1988. 2. 9) 물론 학생들간의 위화감이나 탈선 행위의 증가, 고급 통학복 착용 등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그 이전의 계복세대와는 다른 창의성, 감각성, 개방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은 규제없이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었지만, 실제로 입을 것은 계복밖에 없었으며 부모들이나 학생들 자신도 개성을 살릴만큼 세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동안 패션의 역사가 짧았던 우리 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옷이나 패션은 시도조차 없었으나 점차 청소년들의 주니어 패션에 대한 요구와 각 의류업체로부터의 각종 주니어 브랜드 출시는 주니어 패션 시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일보, 1983. 2. 23) 또한 계복 자율화 정책에 따른 판매 경쟁은 젊은층에게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준과 동시에 이들을 시장으로 한 주니어 패션의 탄생과 함께 영 패션을 급성장시켰다.(염혜정, 1991)

이와 같은 계복 자율화를 계기로 이루어진 주니어 패션에 대해 의복 행동(염혜정, 1991; 나수임, 한명숙, 1986; 이수희, 1988; 오린, 1982; 심소연, 강혜원, 1983; 조성이, 1985)이나 디자인, 선호도 및 선호색 등(박인미, 1989; 이선재, 1982; 한현숙, 1977; 권미

세, 1977; 이기령, 1991; 남상우, 맹정숙, 1980)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계복 자율화 이후의 여학생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복식이 의복의 종류에 따라 스타일 및 색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변천되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여학생 잡지 「주니어」에 나타난 의상화보를 중심으로 각 시대에 나타난 특징적인 복식 현상을 조사하여 여학생의 복식이 가진 특징을 파악하고

둘째, 복식 종류별 스타일 변천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의복 제작 및 마케팅 활동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셋째, 계절별 의복색 빈도를 조사하여 색상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 여학생들의 의복색 선호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여학생 잡지인 「주니어」에 나타난 패션 화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주니어」를 선정 이유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는 잡지는 「주니어」가 유일하며 이 잡지가 여학생에게 인기있는 대중잡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잡지의 각 호마다 실린 패션 화보의 수가 다르고 또한 각 호가 여러 가지의 복식을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및 계절에 선호되는 복식을 중점적으로 실고 있기 때문에 연도 및 복식의 종류에 따라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편집자의 주관이 연

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당시 전체 여학생들의 일반적 경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과 의복

청소년(Adolescent)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의 성장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의존적인 아동기로부터 자립적인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로서, 심리적으로는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한계상태를 의미한다.(송종두, 1981)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하여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아의식이 발달하며, 주관과 개성이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반항심도 강해진다.

또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은 2-3년 사이에 급격히 진행되어 성인에 가깝게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빨리 온다. 그러나 15세 이후부터는 남자가 여자를 앞서게 된다.(한희운, 1991)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발달은 의복 선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신체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옷이 계속 작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옷의 크기를 변화시켜 입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신체 각 부위의 성장 속도가 다르므로 보정이 가능한 의복 디자인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2차 성 특징도 의복에 영향을 미쳐 여학생의 경우 친구들보다 가슴이 먼저 발달할 때 당황해 하고 감추려 하며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도 신체 노출을 꺼리고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되도록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의복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이은영, 1996)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

이 속한 동료집단의 승인과 소속감을 갈망하는 시기이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므로 의복이라든가 신체적 외모에서 집단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태도가 형성된다.(이인자, 1986) 또한 Horn(1968)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신체 변화에 극도로 예민하여 신체의 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지위에 있는 동년배 집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복이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자신의 용모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서 사회적응의 요인을 신체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특히 여학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Kelly 등(1974)도 의복을 잘 입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류계층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의복이 없어서 단체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했고 또한 자신이 의복을 잘 입었다고 생각되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지 활동적이 되고 집단의 일원임을 자각하나 만일 의복을 잘 못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을 그 집단의 일원이 아닌 방관자로서 느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의복은 사회생활 적응은 물론 원만한 성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그들의 개성을 살리며 활동적인 의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식은 매우 중요하다.

### 2. 주니어 패션의 특징

주니어는 성인이 보아 연소 혹은 연하라는 뜻으로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는 과정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이 입는 복장을 주니어 패션이라고 부른다.(한희운, 1991)

이선재(1982)는 여자 중·고등학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 중·고등학생 모두 상의는

박스(box)형을 좋아하고 앞 여밈 방법으로 디자인 된 옷을 택하고 있으며 네크라인은 여중생의 경우 라운드 네크라인을, 여고생은 브이 네크라인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커트는 스트레이트 스커트를 선호하며 길이는 무릎보다 2-3cm 정도 긴 형태를 선호하고 있어 정숙성을 중시하는 경향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심소연과 강혜원(1983)은 의복 선호 연구 결과, 더블 여밈의 자켓 및 플레어 스커트에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으며, 이는 교복 스타일의 싱글 여밈 자켓과 H 라인 스커트와는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입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성이(1985)는 교복 자율화가 시행된지가 얼마되지 않아 학생들도 복장 구매에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있지만 제조업자 측에서도 학생들의 개성과 품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과 사이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색상은 복식에 있어서 형태 및 재질과 함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의복의 인상을 좌우하며 개인의 의복에 대한 선호를 잘 나타내 주는데 Ryan(197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복의 색상, 질감, 형태가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질감보다는 색상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한현숙(1977)은 착용자의 기분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요소는 색과 형태로, 나이가 들수록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그 계절에 따른 착용 기호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계절에 주는 자연적인 색상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박인미(1989)는 여고생들이 선호하는 색은 흰색, 남색, 파랑의 순으로 채도가 낮은 한색계열이 주조를 이루었고 보라, 주황, 빨강 등 난색 계열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이기령(1991)은 여중생들의 계절별 선호 의복색은 봄, 여름의 경우 노랑, 흰색, 가을과 겨울의 경우에는 보라, 검정이며 무채색은 계절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10년간으로 정하였으며 조사 자료로는 여학생 대상 잡지인 「주니어」를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월간지인 「주니어」는 1976년 3월에 창간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복자율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잡지이며, 1980년대에는 지금은 폐간된 「여학생」, 「소녀시대」, 「하이틴」 등의 잡지와 함께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연예, 영화, 패션, 팝 음악, 문화 등의 소식지 성격의 발행 부수 5만부에 달하는 대중화된 청소년 잡지로서, 그리고 1990년대에는 같은 성격의 「포토 뮤직」, 「뮤직 라이프」, 「뷰」 등과 함께 청소년 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오래된 잡지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으로 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1983년 교복 자율화 이후 주니어 패션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이며 1983년과 1984년의 발행본은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주니어」에 나타난 패션 화보의 의상 사진을 이용하여 여학생 복식을 스커트, 바지, 자켓, 원피스, 코트로 나누고 복식 종류에 따른 스타일 및 색상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복식의 종류에 따른 연도별 스타일 변천을 살펴 보았다. <표 1>

색상은 한국 공업규격 KS A 0011에 의한 유채색 10가지 기본색 중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주황, 연두 7가지를 택하고 청록은 녹색 계열에, 남색은 파랑 계열에, 자주는 빨강 계열에 각각 포함시켰다. 또한 높은 빈도를 보인 밤색과 분홍 외에 무채색인 흰색, 회색, 검정을 첨가하여 12가지 색상으로 분류하였다. 한 종류의 의복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배색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어느 한 색상이 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가를 기준으로 주된 색상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위의 12가지 색상을 중심으로 각 복식의 종류별 색상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측정 단위는 봄(3, 4, 5월), 여름(6, 7, 8월), 가을(9, 10, 11월), 그리고 겨울(12, 1, 2월)로 나누어 3개월을 기준

〈표 1〉 복식 종류에 따른 스타일 및 색상의 구분

복식 종류	스타일 구분		색상 구분
스커트	종 류	타이트, 플리츠, 플레어	흰색, 노랑, 연두, 녹색, 파랑, 분홍, 빨강, 주황, 보라, 밤색, 회색, 검정
	길 이	미니, 니이, 미디, 맥시	
바 지	종 류	슬림, 스트레이트 배기즈, 플레어, 벨 보텀스	
	길 이	쇼트, 버뮤다, 니이, 앵클	
자 켓	실루엣	H라인, A라인, X라인	
	길 이	웨이스트 라인, 힙 라인	
	허리선 위치	하이 웨이스트, 내츄럴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 노 웨이스트	
원피스	실루엣	H라인, A라인, X라인	
	길 이	마이크로, 미니, 니이, 미디, 맥시	
	허리선 위치	하이 웨이스트, 내츄럴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 노 웨이스트	
	허리둘레 맞춤정도	피트, 세미 피트, 루즈	
코 트	실루엣	H라인, A라인, X라인	
	길 이	힙 라인, 미니, 니이, 미디, 맥시	
	허리선 위치	하이 웨이스트, 내츄럴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 노 웨이스트	
	허리둘레 맞춤정도	피트, 세미 피트, 루즈	

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복식의 종류에 따라 계절별 색상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 IV.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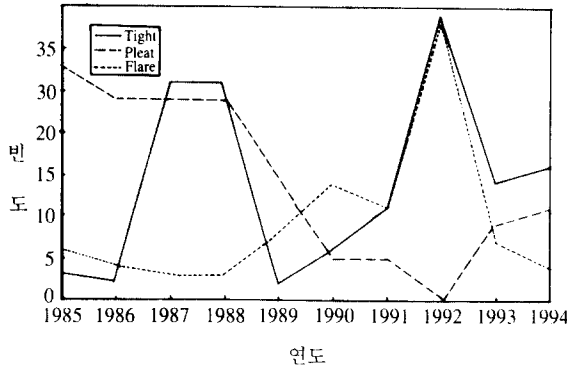
##### 1. 복식의 종류에 따른 스타일 변천

###### (1) 스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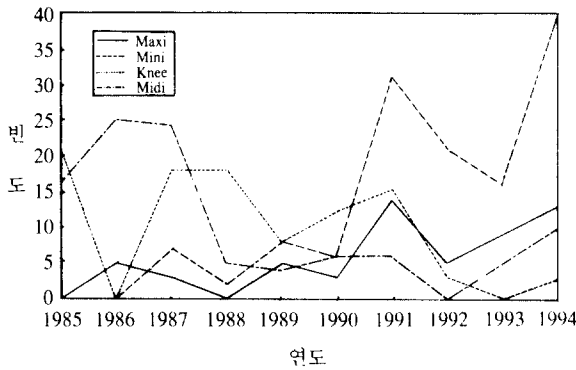
스커트 〈그림 1〉는 1985년, 1986년에는 플리츠 스커트가 주를 이루었고 1987년, 1988년에는 타이트 스커트의 급격한 상승으로 플리츠 스커트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이며 타이트 스커트와 플리츠 스커트가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타이트 스커트는 급감하고 플레어 스커트는 크게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플레어 스커트가 주를 이룬 것이 주목할 만하다. 1991년, 1992년에는 급감했던 타이트 스커트가 1990년 부터 다시 증가하여 타이트 스커트와 플레

어 스커트가 거의 비슷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플레어 스커트의 쇠퇴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며 타이트 스커트가 주로 사용되었다. 즉, 플리츠, 타이트, 플레어, 타이트 스커트의 순으로 변화되며 사용되었는데 타이트 스커트가 플리츠 스커트에서 플레어 스커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클래식한 스타일로 사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커트 길이 〈그림 2〉를 살펴보면 1985년에는 니이와 미디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1986년, 1987년에는 미디가 강세를 보였으며 1988년, 1989년, 1990년에 니이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1991년부터는 1989년부터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미니가 가장 대표적인 길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1985년에는 니이가, 1986년, 1987년에는 미디가, 1988년, 1989년, 1990년에는 다시 니이가, 그리고 1991년부터는 미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도 유행이 넘어가는 시기 즉 미디에서 미니로 넘어가는 시기에 클래식을



〈그림 1〉 스커트 종류의 연도별 변화



〈그림 2〉 스커트 길이의 연도별 변화

이용한 전환으로 니이가 사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맥시는 연도에 따라 점차 빈도가 증가하여 1991년부터는 미니 다음으로 빈도가 높아 미니 스커트와 맥시 스커트가 함께 입혀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스커트의 변화를 성인 여성의 복식과 비교하여 보면 1985년부터 1989년까지는 플레어 스커트가 성인 여성에게 유행되었던 시기(선우은주, 1993)인데 반해, 여학생 복식에서는 1990년에 플레어 스커트가 크게 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 자율화 이후 얼마 동안은 여학생의 패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패션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여성의 복식을 쉽게 따르지 못하고 시기상으로 조금 늦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1988년 혹은 1989년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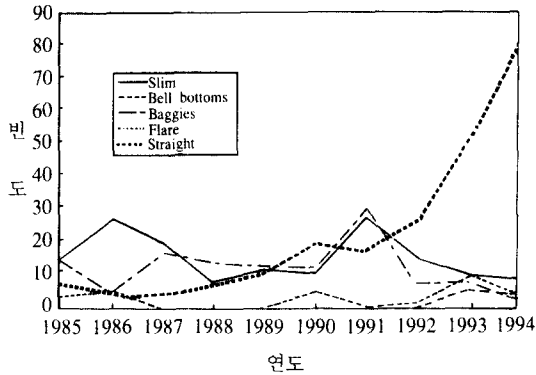
엘레강스 시대를 지나 1989년 혹은 1990년부터 캐주얼 시대로 들어서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분위기의 미니 스커트와 긴 A라인 스커트가 성인 여성들에게 유행되자(TEXTOPIA, 1992) 여학생 복식에서도 미니 타이트 스커트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맥시 스커트도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학생 복식이 성인 여성 복식의 유행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커트 길이는 경제가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1985년(경제성장률 7.0%), 1986년(경제성장률 12.9%)에는 길이가 니이에서 미디로 길어졌으며,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1989년(경제성장률 6.8%)부터는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여 1991년(경제성장률 5.0%)부터는 미니 스커트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가 호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고 불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는 Richardson 등의 이론(선우은주, 1993에서 재인용)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는 Greenwood 등(1978) 및 Troxell 등(1981)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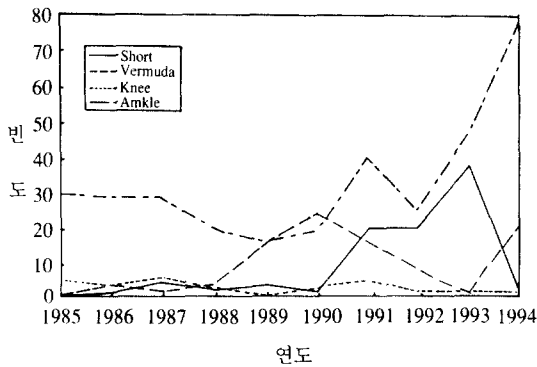
## (2) 바지

바지 종류 〈그림 3〉는 1991년까지는 배기즈 팬츠, 슬림 팬츠, 스트레이트 팬츠가 서로 비슷한 빈도를 보이며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1980년부터 성인 여성에게 유행하였던 배기즈 팬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여원, 1980. 9, 1984. 10; 선우은주, 1993) 그러나 1992년부터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던 스트레이트 팬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로 사용되고, 슬림 팬츠와 배기즈 팬츠는 반대로 감소하였다. 벨 보톰스 팬츠와 플레어 팬츠는 전반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벨 보톰스 팬츠와 플레어 팬츠는 이미 1970년대에 유행하였던 스타일로 유행주기가 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바지 길이 〈그림 4〉는 앵클이 전 시기에 걸쳐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1989년부터는 앵클 이외의 다양한 바지 길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버뮤다는 1989년부터 증가하여 1990년도에 최고 빈도를 보였으나 1991년, 1992년, 1993년에는 쇼트가



〈그림 3〉 바지 종류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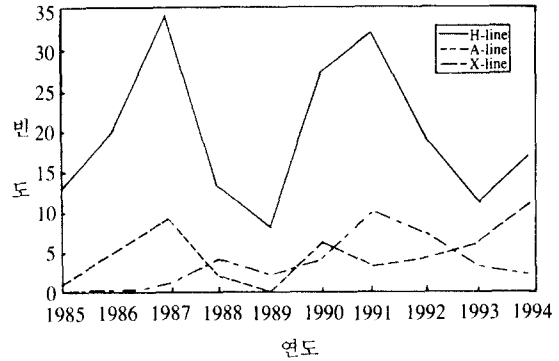
〈그림 4〉 바지 길이의 연도별 변화

증가하고 버뮤다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는 버뮤다가 다시 증가하여 앵클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쇼트는 약간만 사용되었는데 버뮤다와 쇼트는 서로 반대 경향으로 빈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89년부터 캐주얼 시대로 접어 들면서 성인 여성 복식에 바지가 많이 등장하게 되며, 바지의 디자인 경향이 스포츠 웨어 스타일로 변화(TEXTOPIA, 1992)하므로 성인 여성 복식의 영향을 받아 여학생 복식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3) 자켓

실루엣의 변화 〈그림 5〉는 H라인이 10년동안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1987년과 1991년에는 H라인 자켓이 많이 입혀졌음을 알 수 있었다. H라인이 많

이 사용된 이유는 학생복이라는 특성상 체형을 드러내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활동성이 좋은 디자인이 선호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A라인과 X라인은 H라인보다 덜 사용되며 서로 변갈아가며 나타났는데 1991년부터 A라인은 상승하는 경향을, X라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 시기가 에콜로지를 지향하는 자연 보호 시대로 내추럴 무드를 중시하여(TEXTOPIA, 1992) 과장된 어깨가 강조되는 X라인보다는 자연스러운 A라인이 선호되는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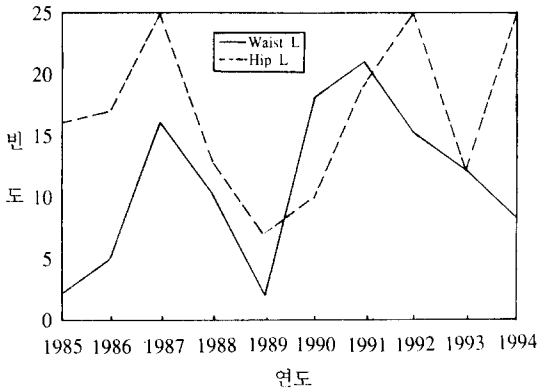


〈그림 5〉 자켓 실루엣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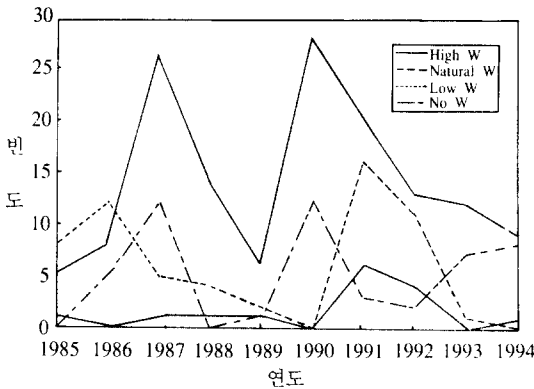
자켓의 길이 〈그림 6〉는 전반적으로 힙 라인이 웨이스트 라인보다 많이 사용되었는데 1990년과 1991년에는 웨이스트 라인이 약간 더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허리선의 위치 〈그림 7〉는 학생복이라는 특성상 내추럴 웨이스트가 월등히 많았다. 그 외에 로우 웨이스트와 노 웨이스트가 교대로 나타났으며 하이 웨이스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1991년, 1992년에 약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자켓은 10년동안 유행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학생복으로 무난한 내추럴 웨이스트의 힙 라인 H 실루엣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각 시대의 유행에 영향을 받은 형태가 조금씩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원피스

원피스의 실루엣 〈그림 8〉은 1985년에는 X라인, 1986년에는 H라인, 1987년, 1988년에는 A라인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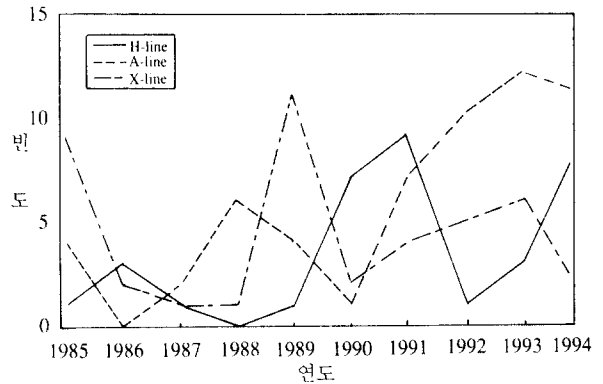
〈그림 6〉 자켓 길이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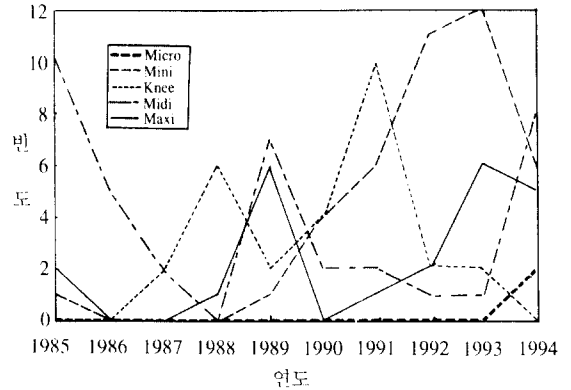
〈그림 7〉 자켓 허리선 위치의 연도별 변화

행하고 다시 1989년에는 X라인, 1990년, 1991년에는 H라인 그리고 1992년, 1993년, 1994년에는 A라인이 유행하고 있다. 즉, X라인, H라인, A라인의 순서로 반복되며 유행되고, 유행의 전성기에 있는 기간이 X라인, H라인, A라인의 순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라인과 X라인은 빈도의 증감이 같은 경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A라인, X라인과 H라인은 서로 반대 경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패션산업에서 1980년대는 고품질, 고개성, 고감도를 추구하며 1990년대는 이외에 고부가가치를 더 요구하는 시대로,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성인 여성에게 엘레강스한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선호되면서 블라우스와 원피스가 많이 사용되며 보디 컨셔스 룩이 강조되는 패션 페미니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며(월간 멋, 1989. 9; TEXTOPIA, 1992)

1990년부터는 에콜로지 붐이 일면서 소재의 다양화와 자연소재의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1992년, 1993년에는 1960년대, 1970년대의 복고풍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개성화의 경향으로 디자인이 다양화되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A라인, 세미 피트 라인, 믹스 & 매치 라인 등이 나타났다.(TEXTOPIA, 1992) 이와 같은 성인 여성복의 유행 경향은 여학생 복식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원피스 실루엣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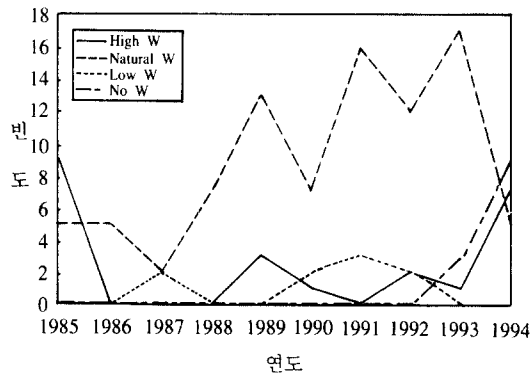


〈그림 9〉 원피스 길이의 연도별 변화

원피스 길이 〈그림 9〉는 1985년, 1986년에는 미디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감소하고 1987년부터 니이가 증가하여 1988년에는 니이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는 다시 미디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맥시도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곧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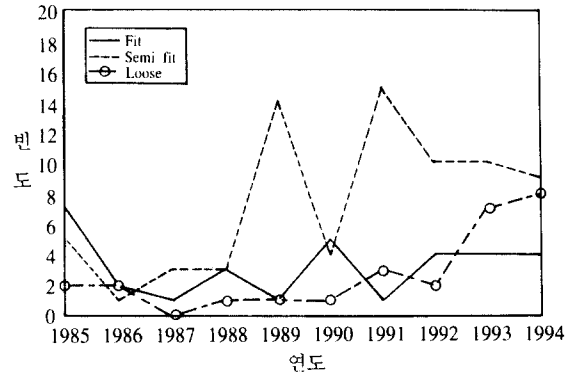
면서 1990년에는 다시 니이가 사용되면서 한편으론 198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미니도 높은 빈도를 보인다 1992년, 1993년에 미니만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니는 1994년에는 감소하고 미디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맥시도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미디에서 미니로 변화 되어가며 니이가 그 과도기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스커트 길이와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복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원피스 길이와 스커트 길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원피스 허리선 위치의 연도별 변화

허리선의 위치 〈그림 10〉는 1985년에는 하이 웨이스트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 줄곧 내추럴 웨이스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994년에는 내추럴 웨이스트가 감소하면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노 웨이스트와 하이 웨이스트가 함께 사용되며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허리둘레의 맞음 정도 〈그림 11〉를 보면 세미 피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피트는 X라인이 유행했던 1985년도에 높은 빈도를 보였고 한번 더 X라인이 유행했던 1989년에는 세미 피트가 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X라인 실루엣의 특성상 허리가 들어가야 하므로 피트나 세미 피트가 사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H라인이나 A라인이 유행했던 시기는 전반적으로 세미 피트가 많이 사용되었고 루즈 스타일은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세미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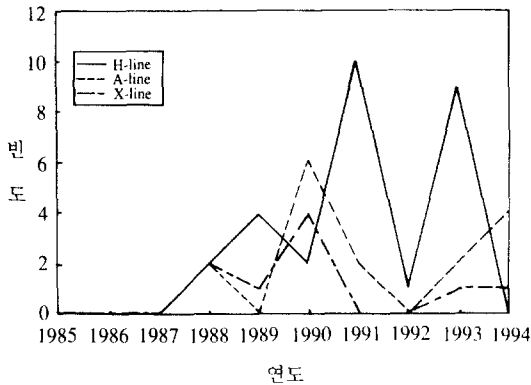
〈그림 11〉 원피스 허리둘레 맞음정도의 연도별 변화

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복이란 특성상 피트보다는 세미 피트나 루즈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허리둘레 맞음 정도도 성인 여성 복식 유행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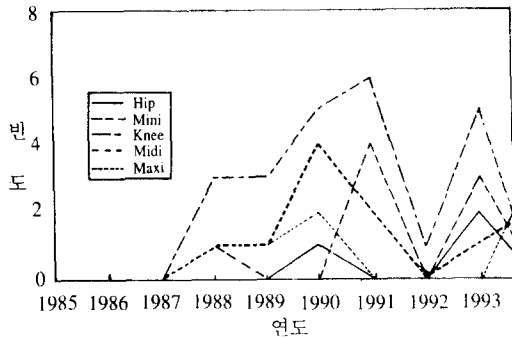
#### (5) 코트

코트의 실루엣 〈그림 12〉은 전체적으로 H라인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1990년과 1994년에는 A라인의 코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H라인의 코트가 주로 사용된 것은 코트는 다른 단품 의복보다 고가이므로 학생 스스로가 아닌 부모에 의한 구매 결정이 많기 때문에 크게 유행을 따르지 않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박스형을 선호한 결과로 생각되며 또한 성인 여성 복식의 영향도 받아 1988년과 1989년에 성인 여성 코트의 대부분이 H라인 실루엣이므로(여원, 1988. 10) 이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3년부터 '신세대'라는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패션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생존이나 생활의 차원을 넘어 인생을 즐긴다는 가치를 중시해 생활의 주관적인 만족을 위해 패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매에 있어서도 소유를 통한 만족보다는 사용에 의한 만족을 추구하며 상품의 질보다는 그것을 판매하는 장소의 분위기나 서비스 등의 복합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반면 자신의 평가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강인애, 1995에서 재인용) 그러

므로 이러한 신세대들은 특히 인기 연예인들의 패션을 모방하기도 하여 학생복이라는 이미지의 특별한 복식의 구분이 없어지고 유행에도 민감해져 1994년의 코트는 H라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A라인이 주를 이루었고 X라인도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H라인의 변화 경향과 A라인, X라인의 변화 경향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행의 특성상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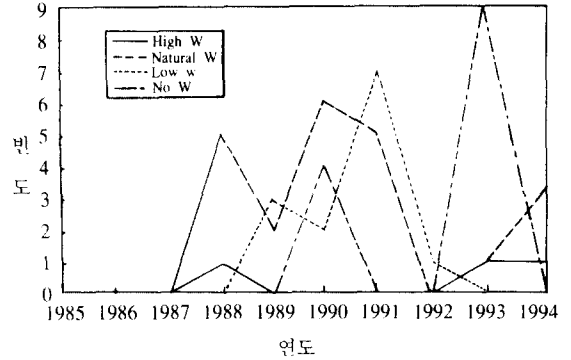
〈그림 12〉 코트 실루엣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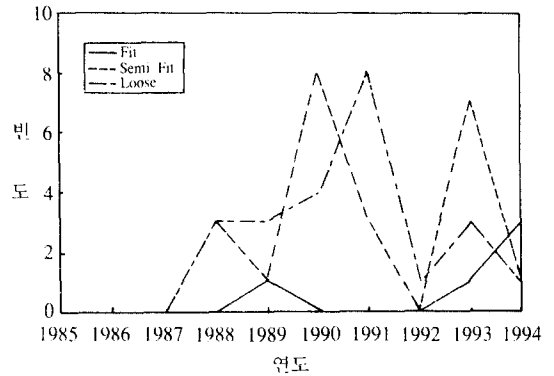
〈그림 13〉 코트 길이의 연도별 변화

코트의 길이 변화 〈그림 13〉를 살펴보면 니이가 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코트가 구매빈도가 잦은 복식이 아니며 방한의 목적 외에도 패션의 목적이 큰 성인 여성 코트보다는 방한의 역할이 훨씬 더 요구되므로 여학생이 입기에 적당한 니이가 오랫동안 주류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선 위치 〈그림 14〉는 1990년까지는 내추럴 웨



〈그림 14〉 코트 허리선 위치의 연도별 변화



〈그림 15〉 코트 허리둘레 맞춤정도의 연도별 변화

이스트, 1992년까지는 로우 웨이스트, 1993년에는 노 웨이스트가 많이 사용되었고 1994년에는 다시 내추럴 웨이스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허리둘레의 맞춤 정도 〈그림 15〉는 1993년까지 루즈와 세미 피트가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에는 피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2. 복식의 종류에 따른 색상 변화

복식의 종류에 따른 색상 변화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1) 스커트

봄에는 파랑, 흰색, 검정, 빨강의 순으로 파랑이 주로 사용되며 연두, 분홍, 노랑 등의 화사한 색상들도 나타났다. 여름에는 흰색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복식의 종류에 따른 계절별 색상의 빈도

복식 종류	계절	색상												계
		흰색	노랑	연두	녹색	파랑	분홍	빨강	주황	보라	밤색	회색	검정	
스커트	봄	19	5	6	3	25	6	8	1	3	5	4	13	98
	여름	25	4	4	2	23	5	9	0	2	2	1	9	86
	가을	6	3	3	12	29	5	15	1	0	14	13	30	131
	겨울	6	4	2	3	8	2	12	0	0	9	6	22	74
	계	56	16	15	20	85	18	44	2	5	30	24	74	389
바지	봄	27	7	4	4	44	9	6	2	0	9	1	9	122
	여름	39	5	4	4	39	8	10	3	2	7	4	16	141
	가을	9	3	0	7	51	0	7	1	1	22	5	29	135
	겨울	18	3	3	5	33	4	13	0	4	16	9	16	124
	계	93	18	11	20	167	21	36	6	7	54	19	70	522
자켓	봄	10	6	9	3	17	6	7	5	0	10	2	6	81
	여름	5	2	1	0	1	0	2	1	0	0	1	8	21
	가을	1	3	1	7	17	0	13	0	4	8	12	20	86
	겨울	9	7	3	4	11	4	11	3	3	7	9	19	90
	계	25	18	14	14	46	10	33	9	7	25	24	53	278
원피스	봄	6	3	1	1	9	2	3	1	2	0	3	6	37
	여름	8	3	3	2	10	2	13	3	1	2	2	6	55
	가을	2	1	0	0	4	2	3	0	2	3	2	9	28
	겨울	2	0	0	0	1	1	2	0	1	0	0	6	13
	계	18	7	4	3	24	7	21	4	6	5	7	27	133
코트	봄	0	0	0	0	1	0	0	0	0	0	0	0	1
	여름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을	0	1	0	2	0	0	1	0	0	0	0	3	7
	겨울	3	1	1	3	3	1	10	1	0	7	3	11	44
	계	3	2	1	5	4	1	11	1	0	7	3	14	52
계	봄	62	22	20	11	96	23	24	9	5	24	10	33	339
	여름	77	14	12	8	73	15	34	7	5	11	8	39	303
	가을	18	11	4	28	101	7	39	2	7	47	32	91	387
	겨울	38	15	9	15	56	12	48	4	8	39	27	74	345
	계	195	62	45	62	326	57	145	22	25	121	77	237	1374

며 파랑, 빨강, 검정도 많이 사용되었다. 가을에는 검정, 파랑, 빨강, 밤색, 회색, 녹색의 순으로 검정과 파랑이 주로 나타나며 봄, 여름에 비해 밤색과 회색의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겨울에도 검정, 빨강, 밤색, 파랑, 회색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파랑의 사

용이 준 것을 제외하고는 가을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스커트의 색상은 계절에 관계없이 주로 파랑, 검정, 흰색, 빨강, 밤색, 회색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Korea Survey Polls Ltd.에서 실시한 전국 의류 구매 실태조사(1991)에서 나타난 여자

스커트의 선호색상이 검정, 감색, 흰색, 갈색인 것과 색상의 종류가 거의 일치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바지

봄에 나타난 바지 색상은 대부분 파랑과 흰색이었으며 여름에도 파랑과 흰색이 대부분인 가운데 검정과 빨강도 보였다. 가을에는 파랑이 마찬가지로 주를 이루나 봄, 여름에 비해 흰색의 사용이 현저히 줄고 검정과 밤색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겨울에도 파랑이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 흰색, 검정, 밤색, 빨강, 회색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바지의 색상은 파랑이 주로 사용되며 그 외에 흰색, 검정, 밤색, 빨강, 녹색, 회색의 색상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파랑이 많이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으므로 청바지의 색상인 파랑의 빈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바지의 색상 역시 전국 의류 구매 실태조사(1991)에서 나타난 여자 바지의 선호색상 결과 즉, 감색, 검정, 흰색, 밤색과 일치하였다.

#### (3) 자켓

봄에는 파랑, 흰색, 밤색, 연두, 빨강, 노랑, 분홍, 검정의 순으로 파랑이 주로 나타났으며, 여름에는 자켓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검정과 흰색이 주를 이루었다. 가을에는 검정, 파랑, 빨강, 회색, 밤색, 녹색의 순으로 나타나며 봄, 여름과 달리 흰색이 줄고 검정, 회색, 밤색의 비율이 높아졌다. 겨울은 검정, 빨강, 파랑, 흰색, 회색, 밤색, 노랑의 순으로 검정이 가장 많았다. 자켓의 색상은 계절에 관계없이 검정, 파랑, 빨강, 흰색, 밤색, 회색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 (4) 원피스

봄에는 파랑, 흰색, 검정이 많이 사용되었고 빨강, 노랑, 회색도 사용되었다. 여름은 빨강, 파랑, 흰색, 검정으로 빨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가을에는 검정, 파랑, 빨강, 밤색이 겨울에는 검정이 많이 사용되었다. 원피스의 색상은 계절에 관계없이 검정, 파랑, 빨강, 흰색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 (5) 코트

코트는 방한용으로 입혀지므로 가을과 겨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검정, 빨강, 밤색이 주로 나타났고 녹색, 파랑, 흰색, 회색도 사용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복식에 따른 선호색상의 종류는 전국 의류 구매 실태조사의 결과(1991)와 거의 일치하였고, 또한 복식의 종류에 따라 계절에 상관없이 스커트와 바지는 파랑이 자켓, 원피스, 코트는 검정이 주로 사용되어 특별히 뚜렷이 선호되는 색상은 없었고 어느 종류의 복식이나 색상은 주로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와 바지를 하의로 묶어서 계절별 변화를 살펴보면 하의의 경우 봄, 여름에는 파랑, 흰색, 검정이, 가을과 겨울에는 파랑, 검정, 밤색, 빨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파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봄, 여름에는 흰색이, 가을과 겨울에는 검정, 밤색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절별 색상의 빈도를 살펴 본 결과 역시 봄과 여름에는 파랑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며 검정, 빨강도 사용된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검정과 파랑이 주로 사용되고 빨강, 밤색, 회색, 흰색, 녹색도 사용되었다. 그 외에 봄에는 분홍, 노랑, 연두, 주황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밤색과 회색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계절에 따른 색상의 변화는 자연환경의 색상변화에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봄과 여름에는 노랑, 흰색 가을과 겨울에는 보라, 검정이 여중생들의 선호색이라는 그리고 무채색은 계절에 관계없이 선호된다는 이기령(1991)의 결과와는 노랑과 보라대신 파랑이 모두 들어가는데서 차이가 있으나 봄, 여름에 흰색,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검정이 선호된다는 사실에서는 일치하였다.

그리고 복식의 종류 및 계절에 관계없이 파랑, 검정, 흰색, 빨강, 밤색, 회색의 순으로 사용되어 여학생 복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은 파랑임을 알 수 있었는데, 여학생 복식에서 이처럼 파랑이 크게 나타난 것은 복식의 종류에서 바지 및 스커트가 차

지하는 비율이 자켓, 원피스, 코트에 비해서 크므로 바지 및 스커트의 주된 색상에 영향을 받아 파랑의 빈도가 크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남상우와 맹정숙(1980)의 여자 중·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의복색이 푸른색이라는 주장과도 일치하며, 여고생이 흰색, 남색, 파랑의 순으로 채도가 낮은 한 색계열을 난색계열보다 선호한다는 박인미(1989)의 결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의류 구매 실태조사(1991)에서 나타난 성인 여성의 선호색상 순위를 보면 검정(14.2%), 흰색(13.0%), 녹색(10.9%), 감색(8.9%)의 순인데 여기서도 파랑의 순위만 차이가 날 뿐 색상의 종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 여성과 여학생간의 색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여학생 잡지 「주니어」에 나타난 의상 화보를 중심으로 여학생 복식의 종류에 따른 스타일 변천 및 색상 변화를 살펴 보았다.

여학생 복식의 종류에 따른 스타일 변천을 보면

첫째, 스커트는 플리츠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로 변화하며 사용되었다. 스커트 길이는 초기에 니와 미디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미니가 주로 사용되었다.

둘째, 바지는 초기에 배기즈 팬츠, 슬립 팬츠, 스트레이트 팬츠가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스트레이트 팬츠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바지 길이는 앵클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자켓은 힙라인의 내추럴 웨이스트 H실루엣이 주로 사용되었다.

넷째, 원피스의 실루엣은 X라인, H라인, A라인으로 변화하며 반복 사용되었으며 세미 피트, 내추럴 웨이스트가 주를 이루었다. 길이는 미디에서 니를 거쳐 미니로 변화되었다.

다섯째, 코트는 니이의 루즈나 세미 피트 H라인이 주를 이루었다. 허리선 위치는 내추럴, 로우, 노, 내추럴 웨이스트로 변화되며 사용되었다.

여학생 복식의 종류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스커트는 봄에는 파랑, 여름에는 흰색, 가을, 겨울에는 검정이 주로 사용되었고, 바지는 사계절 모두 파랑이 주로 사용되었다. 자켓은 봄에는 파랑, 여름, 가을, 겨울에는 검정이 주로 사용되었다. 원피스는 봄에는 파랑, 여름에는 빨강, 가을, 겨울에는 검정이 주로 사용되었고, 코트는 검정이 주로 사용되었다.

둘째, 복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봄, 여름에는 파랑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고 가을, 겨울에는 검정과 파랑이 주로 사용되어 여학생 복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은 복식의 종류 및 계절에 관계없이 파랑, 검정, 흰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는 한 가지 잡지만이 아닌 여러 가지 자료를 광범위하게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여 복식의 종류에 따른 색상 외에 명도와 채도의 변화, 재질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각 복식 종류별 상관 관계와 성인 여성 복식 변천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남학생 복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1) 강인애, “신세대의 의복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2.
- 2) 권미세, “한국 여대생의 기호색과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덕성여자대학교논문집, 제 5-6집, 1977.
- 3) 나수임, 한명숙, “여고생의 복식 선호와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 10권, 1호, 1986.
- 4) 남상우, 맹정숙, “한국 여성의 의복 색채 기호에 관한 고찰”,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5) 동아일보, 1988. 2. 9.
- 6) 박인미, “여고생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와 성격 및 사회계층과의 상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7) 선우은주, “한국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8) 송종두 역, 「청소년 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1, p.10.
- 9) 심소연, 강혜원, “여고생의 의복 행동과 과시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 7권, 2호, 1983.
- 10) 여원, 1980. 9, 1984. 10, 1988. 10.
- 11) 염혜정, “한국 신세대의 복식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12) 오 린, “여고생의 의복 행동과 배경과의 상관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2.
- 13) 월간 멋, 1989. 9.
- 14) 이기령, “여자 중학생의 의복색 선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15) 이선재,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 6권, 1호, 1982.
- 16) 이수희,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
- 17) 이은영, 「복식 의장학」, 교문사, 1996. p.341.
- 18) 이인자, 「복식사회 심리학」, 수학사, 1986. p.10.
- 19) 조성이, “고등학교 학생의 복장에 대한 소비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79.
- 20) 한국일보, 1983. 2. 23.
- 21) 한현숙, “의상 디자인의 요소가 여성 심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22) 한희윤 역, 「패션 스타일에 관한 용어집」, 경춘사, 1991.
- 23) E. A. Kelly, C. W. Daigle, R. S. LaFleur, and L. J. Wilson,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74, pp.168-174.
- 24) Greenwood, Kathryn Moore and Mary Fox Murphy,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8.
- 25) Korea Survey Polls Ltd. 전국 의류 구매 실태조사, 1991.
- 26)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8, pp.120-122.
- 27) M. S. Ryan,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 28) TEXTOPIA, 1992
- 29) Troxell, Mary D. and Elaine Stone, 「Fashion Merchandising」3rd ed., New York: McGraw-Hill Inc., 1981.